

아시아의 정보통신산업의 시장현황과 전망

아시아의 통신산업 및 시장현황은 급속한 보급신장의 진행이 예상되고, 최근에 WTO로 인해서 각국이 법제도, 규제를 완화하여 민영화 및 외자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개발도상국의 경우 인프라의정비에 새로운 BOT나 BTO 방식이 도입되면서 이런 보급은 가속이 되고 있고, 선진국의 경우는 광파이버와 이동체, 위성통신 등 새로운 기술의 도입에 의한 투자가 진행되면서 다른 차원에서 여러 가지 투자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 기 승 노무라종합연구소 대표

국내전화는 최근 2~3년 사이에 독점체제에서 경쟁체제로 이미 변환이 시작되었고, 국제전화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제국들이 선진캐리어들의 경쟁력을 감당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 당분간 5~10년 동안 기간을 연장받은 상황이다. 거기에 비해 휴대전화는 처음부터 완전 경쟁체제로 시작되었다. 각국의 국내전화사의 민영화도 지난 수년간에 진행되어서 한국에 비해서 약간 빠른 상황을 보이고 있다. 싱가포르 텔레콤은 92년, 말레이시아 텔레콤은 94년, 태국도 작년에 모든 전화사들이 모두 민영화로 이전하였다.

< 표 1 > 아시아 각국의 통신분야에의 경쟁도입 상황

국 가	국 내 전 화	국 제 전 화	휴 대 전 화
싱 가 폴	2000년 3월까지 싱가포르 텔레콤이 독점	2000년 3월까지 싱가포르 텔레콤이 독점	97년 3월까지 싱가포르 텔레콤이 독점. 4월부터 모빌원 참여
홍 콩	홍콩 텔레콤, 뉴월드, 허치슨, New T&T	2006년 10월까지 홍콩 텔레콤이 독점	4사가 운영. PCS 6개 면허 신규부여
말레이시아	6사가 라이선스 보유, 합리화와 정책 철회	5사가 라이선스 보유	8사가 라이선스 보유 5개사 (그룹)로 집약중
태 국	BOT사 독점 BOT방식으로 민간사 6사까지 확대 계획	CAT가 독점	4사가 운영.PHS 도입예정
인도네시아	PT Telkom 독점, 향후 5사가 BOT방식으로 200만 회선을 부설	Indosat과 Satelindo가 20004년까지 복점	7사가 운영, 1사 운영예정 향후 PCS와 PHS를 검토

< 출처 : NRI >

< 표 2 > ASEAN에 진출한 해외 통신기업

투자국 (해외기업 출자제한)	진출해외기업	출자회사	사업내용	출자비율	출자금액 (백만 \$)
싱가폴 (30%)	C&W, 홍콩텔레콤 컨티넨털 텔레비전(미)	모바일원 케이블비전	휴대전화 CATV	합계로 30% 25%	32 N.A.
말레이시아 (30%)	도이츠 텔레콤 US웨스트 Swiss 텔레콤	TRI 비나리양 무티아라	휴대, 장거리, 국제 휴대, 장거리, 국제, 위성 휴대, 장거리, 국제, 위성	21% 20% 30%	647 230 300
태국 (40%)	싱가폴 텔레콤 모토로라 나이벡스 NTT 도이츠 텔레콤	시나와트라 C&C UCOM 텔레콤 아시아 TT&T 시나와트라 인터내셔널	휴대, CATV, 위성 휴대 고정회선(BTO사업) 고정회선(BTO사업) 국제사업	9.5% 실질 12.8% 13.5% 18% 20~25%	39(시가총액 155) N.A.(시가총액 414) N.A.(시가총액 638) N.A.(시가총액 214) N.A.
말레이시아 (30%)	도이츠 텔레콤 프랑스 텔레콤 US웨스트 텔스트라 NTT 텔레콤 말레이시아 싱가폴 텔레콤	사텔린도 프라민도 이카트 누안타라 아리아웨스트인터내셔널 MTGI MTGI 다야 미트라 말린도 부카카 싱그텔	휴대, 국제, 위성 고정회선(BOT사업) 고정회선(BOT사업) 고정회선(BOT사업) 고정회선(BOT사업) 고정회선(BOT사업) 고정회선(BOT사업)	25% 35% 35% 20% 15% 25% 35%	586 125~155 120~140 68 51 40~45 125~145

< 출처 : NRI >

< 표 3 > 아시아 각국의 통신기기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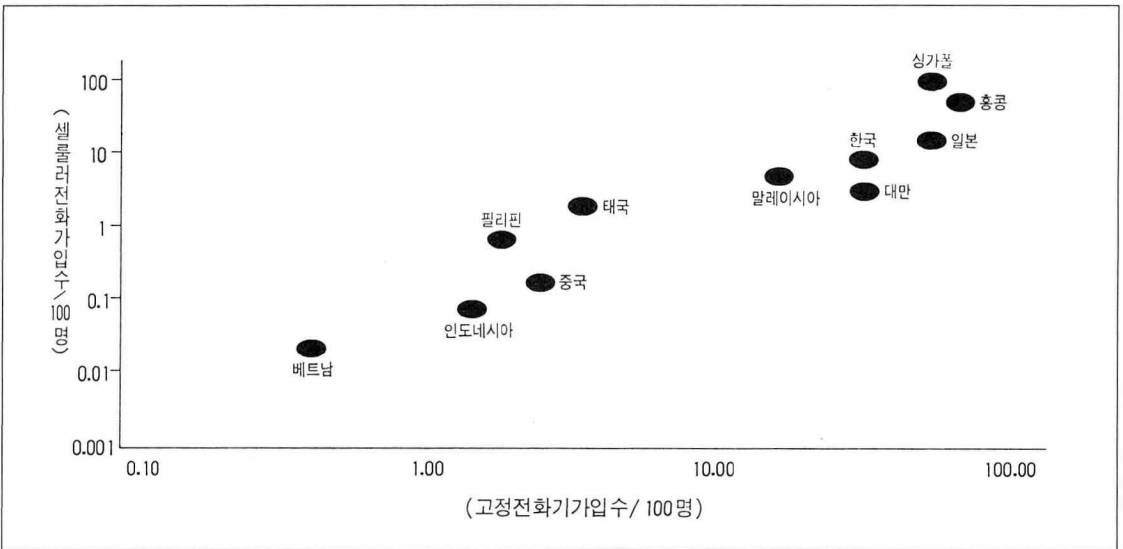
수요 국명	고정망 기기 수요			셀룰러 기기 수요		
	1994년	2000년	성장률 (94~2000)	1994년	2000년	성장률 (94~2000)
일본	7,829	8,553	1%	1,103	1,662	7%
홍콩	482	665	5%	86	73	-3%
싱가폴	235	278	3%	53	44	-3%
대만	1,248	2,027	8%	292	346	3%
한국	2,694	7,263	18%	295	632	14%
말레이시아	552	1,307	15%	132	181	5%
태국	709	1,763	16%	263	385	7%
필리핀	309	2,020	37%	76	206	18%
인도네시아	494	1,262	17%	21	44	13%
중국	10,830	16,008	7%	703	3,325	30%
인도	2,100	4,485	13%	0	267	-
베트남	175	590	22%	6	93	58%
소계	27,657	46,221	9%	3,030	7,259	16%

이동통신분야의 현황과 전망

급성장이 예상되는 이동통신분야는 기간망과 고정망이 더해 이동체통신망과 WLL에 각국이 공히 주력하고 있다. 이동통신분야의 확대는 보급확대의 Trigger가 각국의 경제 및 지리적 요인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향후에 경제성장도에 따라서 아시아의 개발도상국에서도 21세기초, 2000년에서 2010년사이에는 셀룰러폰의 인구보급율이 10%를 넘는 수준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예측을 할 수 있다.

< 그림 1 > 각국의 100명당 고정전화가입자수와 셀룰러 전화가입자수(1995년)



< 출처 : ITU자료를 근거로 NRI 작성 >

역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골고루 정비례하는 상황을 알 수 있다. 여러 가지 기술발전에 의해서 셀룰러 전화가입이 늘어나면서 기술기가 바뀌기 보다는 아마 전반적인 비율, 셀룰러에 대한 고정전화기 보급률에 대한 셀룰러 전화기 보급율이 전반적인 상향 조정이 되는 것은 예상할 수 있다. 이동통신의 시장확대의 2가지 원칙으로는 대상국으로 보면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인도, 베트남 등 후진국으로 단말기 가격이 시장확대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

개발도상국이므로 통신기반 정비가 국책이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WLL를 통한 기반인 프라 비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이용요금은 워낙 낮은 수준으로 국책으로써 활용하는 바가 있다. 사업자가 각자의 서비스 영역을 비교적 좁게 제한하고 설비투자면에서 효율화를 하기 때문에 요금을 낮게 설정할 수 있다.

반면에 일본이나 대만, 미국, 한국의 경우에는 단말기의 가격이 높지만 구매력에 비해서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고 월 이용요금에 대한 배려가 크게 적용되어 왔다. 특히 각 사업자의 서비스 영역이 넓고 설비투자가 큰데다 보급 초기단계에서는 사업수지를 고려하기 때문에 보급까지는 요금이 비싸게 시작되는 그런 상황이다.

<표4>는 셀룰러 비즈니스 에 있어서 선진기업의 진출상황으로 중국의 경우 셀룰러 전화의 네트워크 기기가 각 지방 행정 자치단체의 독자적인 투자에 의해서 지난 수년간 활성화가 되고 있다. 미국과 구라파의 주력통신메이커들이 들어오고 있다. 시스템상으로는 GSM이 주도를 하고 있고 공급원으로는 미국계가 공급이 한 7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외국인의 투자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BOT, BTO 등의 특별 협정이 없는 상황에서 장비업체들의 금융상품을 동원한 장비업체들의 경쟁이 가속되고 있다.

< 표 4 > 중국 셀룰러전화 네트워크 기기의 공급상황(1995년 6월 현재)

행정 구역	도 시	방 식	개 시 년 도	공 급 원
북 경		TACS 900	1988	모토로라
		TACS 900	1989	에릭슨
		GSM	1994	노키아
		GSM	1995	모토로라
		GSM	1995	지멘스
천 진		TACS 900	1990	에릭슨
		CDMA	1994	쿠월컴
		GSM	1995	모토로라
하 북 성	태황도 석가장	TACS 900	1988	에릭슨
		TACS 900	1992	에릭슨
		GSM	1995	노던텔레콤
산 서 성	태 원	TACS 900	1992	모토로라
내 몽 고	호화호특	TACS 900	1992	에릭슨
요 령 성	심양, 대련, 요하유전	NA	1989/1990	일본전기
		NA	1988	노키아
		GSM	1995	에릭슨
		GSM	1995	지멘스
흑 룡 강	대경유전 하얼빈	NA	1988	노키아
		TACS 900	1991	모토로라
상 해		TACS 900	1988	모토로라
		TACS 900	1988	에릭슨
		GSM	1994	지멘스
강 소 성	남경, 무석, 소주, 진강	TACS 900	1993	모토로라
		GSM	1995	알카텔
절 강 성	항주, 영파, 가흥, 운주, 소흥, 가흥	TACS 900 GSM 900	1993	모토로라 알카텔
북 건 성	북주, 아모이	TACS 900	1992	모토로라
		GSM	1995	노키아
산 동 성	제남, 칭도	TACS 900	1992	모토로라
		GSM	1995	에릭슨
호 북 성	무한	TACS 900	1992	모토로라

행정구역	도시	방식	개시년도	공급원
호남성		TACS 900	1992	에릭슨
광동성	광주, 심천, 주해, 산두, 감강, 광주	TACS 900 TACS 900 GSM 900	1987 1991 1994/1995	에릭슨 에릭슨 에릭슨
광서성	치완족자치구 광주	TACS 900 GSM GSM GSM	1993 1995 1995 1995	에릭슨 에릭슨 노키아 모토로라
해남성	해구	TACS 900 GSM	1992 1995	에릭슨 노키아
사천성	중경 성도, 중경	AMPS 800 TACS 900	1988 1992	노바텔 에릭슨
	서안, 서안 보학	TACS 900 AMPS 800 GSM	1992 1992 1995	모토로라 AT&T 노던텔레콤
령하회족	은주	AMPS 800	1992	AT&T
신무치위글	울무치	AMPS 800	1992	AT&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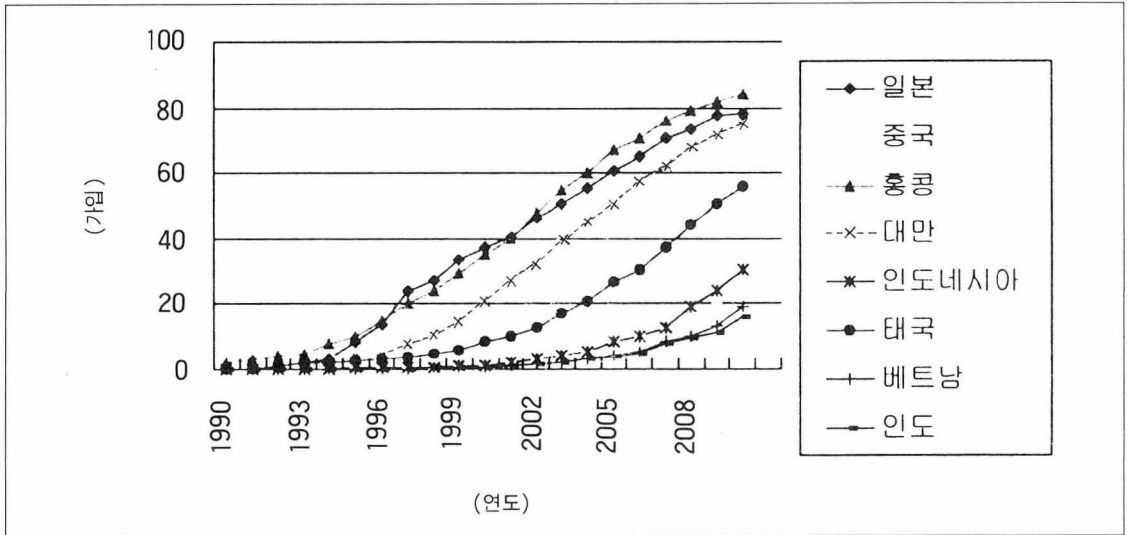
<표5>는 중국에 의해서 2번째 잠재시장인 인도의 경우이다. 인도의 경우에는 해외 투자가 인정이 되고있고, 아직은 면허획득사업자가 많지는 않지만, 구라파나 아시아권의 장비업체들보다는 제반캐리어들이 투자 선점을 하고 있다.

< 표 5 > 인도의 셀룰러 전화 서비스 면허 획득 사업자

도시	사업자명	현지기업	해외파트너	95년말 가입(추정)
Bombay	Hutchison Max Telecom	Max India Ltd.	Hutchison Telecom	15,000
	BPL Systems & Projects	BPL Group	France Telecom	15,000
Delhi	Bhari Cellular Ltd.	Bharti Telecom	CGE	10,000
	Sterling Cellular Ltd.	Sterling Computer		10,000
Calcutta	Usha Martin Telecom Ltd.	Usha Martin Group	Telekom Malaysia	5,000
	Indian Telecom Pvt, Ltd.	BPG Group		5,000
Madras	Mobile Telecom Services Ltd.		Vodafone	4,000
	Skycell Communications Pvt, Ltd.		Bell South	4,000

< 출처 : NRI >

< 표 6 > 각국의 셀룰러 및 간이형 휴대전화 100인당 가입수 예측



< 출처 : NRI 예측 >

간이형 휴대전화라함은 일본의 PHS라든지, 우리나라의 CT-2를 들 수 있다. 아마 장기전망으로는 결국은 일반적인 셀룰러 전화의 범주로서 흡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0년 경우에는 일본 및 홍콩등의 선진국에서는 약 40%의 보급율을 달성할 것이고, 한국의 경우에도 2000년에는 한 40%, 대만권이 한 20%, 기타 태국 등 제반국가들이 10%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한 아시아의 통신시장에서의 사업기회로 한국은 대표적인 통신시장의 하나로서 국내의 신규사업의 가능성을 찾을 수가 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의 이해를 주시하다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사업성 내지는 신규 투자분야가 보일 것이다. 미국의 새로운 기술 및 사업체제와 일본시장에서는 우리와 비슷한 법제도 및 소비자, 구매자 이용패턴에 의해서 약 반년내지 일년의 리타임으로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동안의 통신사업에서 유틸리티사업으로 대기업체 위주로 기존상식되어 오던 쪽이 정부통신사업이 결합이 되면서 민영화, 자유화가 결합이 되면서 상당히 여러분야에서의 사업 가능성들, 중소기업에서나 벤처분야에서 사업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해외진출의 경우에 아시아의 각국에 맞는 사업모델을 개발 준비를 하고 우리나라의 기술에 대한 완벽한 준비를 한다고 하면 상당한 진출 내지는 수송장재가능성을 볼 수 있다. 대부분의 동남아 제국들 BOT나 BTO 프레임에 의한 보급을 가속화가 예상된다. 태국이나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이미 어느정도는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고, 베트남, 미얀마, 인도 같은 상당한 인구력을 포함한 미개척 미래시장이 널려 있다.

일본 상사의 프레임이라곤 하면 중국같은 시장의 BOT나 현지 자본투자가 제한된 시장에는 그 여러 가지 장비업체와의 컨소지움을 통해서 종합상사로서의 진출가능성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시장에서의 기술축적과 CDMA에 있어서의 자신감 확보와 여러 가지 마케팅 및 국제비즈니스 측면에서의 준비가 이러한 해외진출의 가능성을 발전시킬 것으로 보인다. ◆